

성명	남혜림	수험기간	2024.7~2025.07.
학교	성균관대학교	전공	융합생명공학과
키워드	생동차		

들어가며

I.

안녕하세요, 저는 62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남혜림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생동차 합격을 하게 되어 이렇게 수기를 쓸 수 있어 기쁩니다. 많은 합격자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합격수기를 쓰는 이 순간만을 고대하며 수험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문장을 쓰는 데 마음이 괜히 싱숭생숭하기도 합니다.

공부가 안될 때면 합격 후 감사 인사를 전하고픈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 분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떠올리곤 했는데 정말 합격수기를 쓰게 되니 벅찬 기분이 듭니다.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보다 보면 수험생이라는 상황이 더 크게 느껴져 강의·GS 팁만 얼른 읽고 창을 닫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대충 보고 창을 닫으셔도 좋고, 저와 달리 합격수기를 읽고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동차생, 그것도 생동차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보다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정말 믿을 수 없어 정말 눈을 의심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동차생 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마음이었지만, 합격을 가능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시험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음이 잡히지 않아 시험이 끝나고 괜히 책을 한두 권 더 사기도 했고요, 뒤늦게 기득 합격자 분들의 수기를 찾아 읽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복학을 결정하고 전공 공부를 하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1교시 수업이 있어서 수업 중에 결과를 확인한 건 다시 생각해도 너무 힘든 경험입니다.

동차 합격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은 조금 더 멋진 말이지만 그만큼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저의 꿈이 동차 합격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꿈이라는 단어는 더 멋진 미래를 위해 남겨두고픈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던 것이 나름대로 멘탈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단 동차 합격뿐 아니라 합격을 원하는 모든 수험생 분들께 합격은 막연한 꿈이 아닌, 이루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더 많지만, 제 글이 지금 누구보다 떨리고 힘들 동차생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합격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정말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II. 변리사 시험 진입

대학교 3학년이 되고 주변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각자 진로에 따라 여러 가지 대외 활동 혹은 대학원 학부연구생 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래의 제 성격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저도 거기에 따라 함께 동참해야겠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번아웃이라는 핑계를 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공을 살리고 싶긴 하지만, 취업이나 대학원에 크게 뜻이 없었고, 그렇게 아무런 목표도 없는 상태로 남들이 하는 길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소 무모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만 많은 채로 3학년 2학기를 다니던 중, 학교에서 기술고시 및 변리사 시험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중간에 한 학기 휴학을 해서, 당시는 2024년 5월이었는데,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큰 행사도 아니었고, 저도 큰 뜻을 품고 행사장에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변리사 시험에 대해 거의 모르는 채로 갔는데, 그날 바로 수험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앉아서 공부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고, 스스로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기에 큰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설명회가 있던 주의 주말에 바로 본가에 가서 부모님께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통보에 가까운 선언을 하고, 조용히 시험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하긴 한데, 평균 수험 기간이나 수험생들의 고통 같은 정보는 의식적으로 찾아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플랜 B를 만들지 않은 채 동차 합격을 목표로 종강과 동시에 수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월 말에 곧바로 지텔프 시험을 봐 영어 성적 인증을 마쳤는데, 저처럼 토익에 자신 없으신 분들도 지텔프 시험은 조금만 공부하면 기준은 넘을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1차 공부

25년도 1차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95점	92.5점	72.5점

-민법- <점수: 95점>

【강의 및 교재】

교재: 김동진 민법공방, 김동진 민법공방연습

강의: 김동진 민법 기본강의, 김동진 민법공방연습풀이, 김동진 민법 최신판례

【시기별 공부】

24.7	24.8~24.9	24.10~24.11	24.12~25.1	25.2
김동진 민법 기본강의 수강	민법공방 회독	민법공방 회독 및 김동진 민법공방 연습풀이 수강	민법공방 및 민공연 회독 + 김동진 민법 최신판례 수강	시험

윌비스의 김동진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보통 1년을 잡고 1차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 1차 시험까지 대략 7개월 정도 남기고 진입한 저는 마음이 조금 조금했습니다. 법 과목(민특상디)을 저는 순차적으로 수강했는데, 7월에 진입한 만큼 법 과목들이 이미 기본 강의가 완강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법 같은 경우, 하루에 9시간~10시간 정도씩 강의를 쭉 들었습니다. 1.5배속 정도로 들으며,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가 아닌 전혀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만 이해하기 위해 뒤로 감기를 하며 복습을 짧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과생인지라 태어나 처음 배우는 법, 그것도 민법은 솔직히 외국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단어, 한 문장 단위로 전부 이해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우선 종강을 목표로 빠르게 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강의를 쭉 수강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본 강의를 전체 수강했을 때 한 달이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강의 수강만으로 모든 개념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강의도 수강해야 했기에 특허법 기본 강의를 수강할 때는 강의 듣는 시간을 하루에 6~7시간으로 조절하고 민법 복습을 하루에 2시간 정도 잡고 했습니다.

기출 문제 역시 김동진 강사님의 기출 문제집인 민법공방연습(이하, 민공연)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다른 강의와 달리 민법은 기출도 강의를 수강하였고, 기본서와 민공연을 최대한 일대일 비율로 공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변리사 시험 기출만 따로 모아둔 문제집을 구매해서 2~3일만에 풀어보았는데, 불안하신 분들은 풀어봐도 괜찮지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민공연 하나를 계속 복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독 방법】

회독은 기본서와 기출 두 개 다 6~7회독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직전 2회독 정도는 속독을 했습니다.) 따로 서브노트는 만들지 말라고 강사님이 강조하셨는데, 저는 헛갈리는 개념을 인덱스 느낌으로만 정리하여 에이포용지 3페이지 정도로 요약하여 들고 다니며 암기하였습니다. 저도 서브노트는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이므로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으나, 헛갈리는 개념 정도 정리는 여유가 되시면 간단하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2.5점>

【강의 및 교재】

교재 : 특허법 기본서+기출문제, 상표법 기본서+기출문제, 김웅 WK디자인보호법 기본이론+기출문제
강의 : 특허법 기본강의+최신판례, 상표법 기본강의+최신판례, 김웅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시기별 공부】

24.8	24.9	24.9~25.1	25.1	25.2
특상 기본강의 수강	김웅 디자인보호법 기 본강의 수강	기본서 및 기출문제 회독	특상 최신판례강의 수 강	시험

【특허법】

민법 공부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특허법 기본강의를 수강하던 초반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 굳 세게 하려고 나름 계획대로 잘 달려가다가 특허라는 너무 생소한 분야에 무모하게 공부를 시작한 스스로가 원망스러워져 부 모님 앞에서 평평 울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특허는 생소하고 어떤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 다. 저는 1차 공부를 이르지 않게 시작했기 때문에 2차 공부를 병행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1차 합 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하루에 정해진 만큼의 양은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것이 중 요한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는 세 개의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목차별로 정리된 문제집 두 권(서로 다른 강사님)과 연도별로 정리된 문제집 한 권이었는데요, 목차별 문제집 두 권은 솔직히 기본서보다 더 많이 회독했으며, 연도별 문제집은 암기 체크용 정도로 활용했습 니다. 2차까지 생각하면 당연히 기본서 회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저처럼 1차 시험이 급한 분들은 기출 문제 반복을 추 천드립니다. 시험 한 달 전쯤부터 각 강사님 별로 최신 판례 강의가 나올텐데, 본인이 수강했던 강사님의 판례 강의를 들어보 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표법】

1차 상표법의 경우 다른 법 과목에 비해 비중이 낮은 편이라 비교적 부담 없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 기본 강 의를 먼저 수강했던 덕분에 겹치는 개념 같은 경우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생각하는 것이 지만, 특허를 울면서 어렵게 공부했기 때문에 상표 공부가 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표 역시 기본서를 보되, 목차별 기출 문제집 한 권과 연도별 기출 문제집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목차별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 강사님의 창작 문제도 있어 여러 번 회독하며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대비했고, 연도별 기출 문제집 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암기 체크용 정도로만 활용했습니다. 상표는 판례가 매우 중요한 강의인데, 1차를 준비할 때는 크게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직 1차 진입 전이신 분이시라면 1차 공부할 때도 상표 판례는 잘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최신판례 강의를 들었더니 확실히 1차 공부를 마무리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윌비스의 김웅 변리사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강사님은 예전부터 디자인 강의를 해오신 분이라 그런지 이해하기 쉽게 잘 알 려주셨지만, 저는 끝까지 디자인보호법에 흥미를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남들은 법 과목 중에서는 가장 수월하다고 하는데 저 는 아니었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으니, 공부 효율 면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이 가장 괜찮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2차 선택과목 중 선택자가 가장 많은 과목이기도 한 만큼, 1차 공부를 할 때 디자인보호법이 잘 맞는다고 느끼시 는 분들은 꾸준히 공부하셔서 2차까지 이끌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법과목과 자연과학 과목의 공부 분량이 너무 많아 디자인보호법에는 큰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서를 회독하고, 목차별 및 연도별 기출 문제집 각 한 권씩을 다른 법 과목과 마찬가지로 함께 보며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저처럼 디자인보호법 공부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이시더라도 기본서와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 금방 흐름을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72.5점>

【강의 및 교재】

교재 : 물리·화학·생물 기본서+문제집, 박준희 High-End 지구과학

강의 : 물리·화학 기본강의, 박준희 지구과학 기본강의

【자연과학 베이스】

상표법 강의 수강 후반부부터 디자인보호법 강의 수강 시에 자연과학 과목 강의를 병행해서 들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물리와 화학만 듣고 생물과 지구과학은 독학하려고 결심했지만, 수능 때 화학-생명을 선택했던 저에게 지구과학이 생각보다 낫설어서 지구과학 강의까지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강 완료 후에는 물리-생물/ 화학-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 매일 번갈아 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이과 출신인 많은 수험생분들에게 자연과학 공부는 나름 쉬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뇌를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매일 조금씩은 하시길 추천합니다.

【시기별 공부】

24.7	24.8	24.9	24.10	24.12~25.1
생물 독학 (~시험)	물리 기본강의 수강	화학 기본강의 수강	박준희 지구과학 기본 강의 수강	물화생지 문제풀이

자연과학은 강의 수강 일정 위주로 표기. 러프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정확한 수강 기간과 1~2주 정도 차이가 있음.

【물리】

물리 노베이스나 다름없었기 때문에(고등학교 내신으로 물리 I 도 전부 배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진입 시에도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기초부터 가장 차근차근 알려준다는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물리는 거의 노베이스였지만, 고등학생 때 수학을 가장 좋아했던 만큼 법 과목을 하다 지치면 물리를 찾게 될 정도로 흥미가 생겼습니다. 물론 전공 수준에는 절대 미치지 못하지만, 수험 기간 동안 복병일 줄 알았던 물리가 재밌는 과목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 신기하기도 한 경험이었습니다. 62회 시험에서 물리 킬러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은 덕도 있지만, 꽤 안정적인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학】

수능은 화학을 선택했고, 내신은 화학이까지 들었으며, 대학 입학 후 일반화학을 수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공자도 아닌 제가 화학을 독학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변리사 시험 자연과학 과목 중 가장 큰 어려움은 화학입니다. 당연히 중화반응은 버렸고요, 암기 파트를 집중적으로 하되, 다른 부분도 너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틀에 한 번은 꼭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화학 역시 62회 시험에서는 킬러 문제가 많지 않아서 시간 내에 목표했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물】

솔직히 전공자라는 생각에 다른 과목에 비해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62회 1차 시험에서 유독 생물이 어렵게 출제되어 시험장 체감 난이도는 모든 과목 통틀어 생물이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기본서와 기출 문제집을 사서 독학을 했는데,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던 파트를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유전 파트는 자신도 있었고 빈출 유형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헛갈리는 분자생물학 파트를 중심으로 복습하는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기출과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62회 시험에서 가장 멘탈을 흔들었던 과목이지만, 다행히 점수에 있어서 큰 타격은 없었기에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생명도 조금 더 정밀한 암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

월비스의 박준희 강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지구과학이 하기 싫어 선택과목으로 생명, 화학을 했던 저에게 또 다시 지구과학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은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독학을 하려고 했으나 너무 큰 자만임을 깨닫고 강의를 수강했는데, 매우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저처럼 수능 선택 과목으로 지구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천체 파트 스킬은 한 번만 익히면 웬만한 문제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따져보았을 때 강의 수강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생명과 지구도 힘을 빼지 않고 한 과목씩 번갈아 가며 매일 공부했던 것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험생 분들 중 이과이신 분들이 대부분 일 텐데, 전공과목이라고 할지라도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1차 자연과학 공부할 때는 필요한 자세인 듯 합니다.

-기타-

【선택과 집중】

저는 1차 시험을 공부할 때 2차는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2024년 초에 1차 수험생활을 시작했다면 중간에 민소 강의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1차 때는 1차에만 집중한 것이 빠른 합격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법과목은 한 번에 조금씩 모든 기본 강의를 수강하기보다 하나씩 빠르게 듣는 것이 저에게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자연과학은 자신 있는 과목도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원 모의고사】

저는 시판되는 학원 모의고사를 한 회차씩은 전부 구매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지방에서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는 한 번밖에 모의고사를 치르지 못했지만, 학원별 모의고사를 통해 실력을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시간을 측정하며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점점 실력이 올라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 모의고사의 경우 다소 지엽적이라 산인공의 출제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1차 시험이 지엽적으로 나오는 편이라 시험장에서 충격을 받기보다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 미리 새로운 문제들을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 모의고사 복습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기본서와 기출 문제집 정도로 기본적인 회독 및 공부를 진행하시고, 모의고사 복습은 헛갈렸거나 틀린 문제 위주로 가볍게 복습하셔서 다음에 또 틀리지 않도록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54.33점	48.33점	59점	65.66점

-민사소송법- <점수: 54.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이창한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이창한 민사소송법 사례강의, 이창한 민사소송법 기초GS, 이창한 민사소송법 실전GS A·B

▪ 교재

이창한 통합 민사소송법, 이창한 사례 민사소송법, 이창한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핸드북

【수강한 GS】

25년 2~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25년 7월
이창한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수강	이창한 민사소송법 사례강의 수강	이창한 민사소송법기 초GS+실전GS A	이창한 민사소송법실 전GS B	종합모의고사

【시기별 공부】

▪ 강의수강

윌비스의 이창한 강사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동차생들에게 가장 막막한 과목은 당연히 민사소송법일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선 강사님의 기본 강의와 사례 강의를 꼭 들었습니다. 사례 강의(4월)를 할 때 실전A GS도 열렸지만 저는 개념 이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GS에서 점수를 보고 충격을 받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례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강사님께 질문을 많이 하기보다는 무작정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통합 민소법과 사례 민소법 두 권을 놓고 되는 대로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 GS

기초GS 같은 경우, 처음에는 단 한 글자도 책 없이 적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상표 같은 경우, 1차 시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법리 정도는 책을 보지 않아도 기초GS 때부터 작성할 수 있었지만, 민소 같은 경우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책 없이 편을 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책을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답을 더 잘 쓸 수 있을까 매번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기초GS에서는 상위 10% 안에도 여러 번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GS를 수강하던 5월에 저는 실전A GS를 온라인 첨삭을 통해 수강했습니다.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만, 민소는 다른 과목에 비해 양이라도 늘려야 기득 이상하신 분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을 될 것 같아서 무작정 수강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GS 채점표에서는 뒤에서부터 세는 것이 훨씬 빠를 수준이었으나, 그런 충격요법 덕분에 민소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전B GS는 우선 책부터 덮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엉뚱한 조문을 쓰기도 하고, 논점을 잘못 잡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중간 정도의 상위 퍼센트는 유지했고, 상위 30퍼센트가 되었을 때는 혼자서 조용히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이창한 강사님의 실전B GS 같은 경우에는 타강사님의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많이 수강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수강해 더 긴장하며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공부 방법】

민소법 공부 같은 경우, 이창한 강사님의 통합 및 사례 민소법과 핸드북을 무작정 회독했는데, 통합 민소법은 정독, 속독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회독하며 시험 직전까지도 통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례 민소법은 인덱스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목차를 잘못 잡은 사례 문제를 우선하여 회독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핸드북 같은 경우 자기 전 30분 고시원에서 가볍게 읽는 방식으로 회독하였습니다. 판례를 똑같이 현출해내고, 모든 논점을 잡아내는 것이 고득점의 비법임을 모르지 않았으나,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판례를 비슷하게 쓸 수 있고, 대부분의 논점을 잡아낼 수 있도록 회독하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재며 목차를 잡는 방식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기 위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놓친 부분만 표시하며 회독했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재면서 목차를 작성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서 회독】

고득점은 아니지만, 민소법에서 기본적인 점수는 챙길 수 있었던 건 통합 민소법 회독 덕분인 것 같습니다. 1차를 공부할 때는 기출 문제에 더 매달려 있었는데, 2차 공부 시에는 기본서의 중요성을 모든 과목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덜 당황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회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정답이 기본서에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방어는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동차생이시라면 불안하시더라도 기본서를 많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허법- <점수: 48.3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박형준 특허법 기초GS+, 박형준 특허법 실전GS B형, 박형준 특허법 최신판례
- 교재
준특허법 기본서, 준특허법 통합사례

【수강한 GS】

25년 2~4월	25년 5월	25년 6월	25년 7월	25년 7월
박형준 특허법 기초GS+	기출문제 풀이 +준특허법 통합사례	박형준 특허법 실전GS+최신판례	종합모의고사	시험

【기초GS+】

윌비스의 박형준 변리사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변리사님의 커리큘럼은 기초 GS 커리큘럼이 길고, 동차생은 실전 B를 듣는 것을 목표로 짜여져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과목 커리큘럼의 장단점이 있지만, 특허법 같은 경우 기초GS에서 웬만한 문제 유형을 다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공부하는 기간 내내 든든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논점, 최대한 많은 판례를 기초GS에서 모두 다루다 보니 실제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 활용】

총알 암기는 매일 했습니다. 90페이지 분량을 처음에는 6페이지씩,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10페이지, 15페이지로 늘리면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2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 암기하였습니다. 총알을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며 짜투리 시간에 보면서

외운 다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날 조금씩 봤던 부분을 안 보고 쓰는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는데 결국 GS에서나 실제 시험에서나 기억이 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주카포 같은 경우 변리사님께서 형광펜 버전과 무형광펜 버전을 주셨는데, 무형광펜 버전을 인쇄해서 제가 자주 놓치는 논점이나 매우 중요한 판례를 따로 형광펜으로 표시하여서 자주 봤습니다. 특히 6월부터는 실전B GS를 수강했기 때문에 따로 기초GS를 복습할 시간이 없어 바주카포를 시간날 때마다 보면서 목차를 암기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특허 성적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히 특허 공부 방법을 논하는 것이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특허 성적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GS부터 실제 시험까지 유지된 것은 전적으로 총알 암기와 박형준 변리사님이 제공해주신 자료 덕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GS 및 최신판례】

5월에는 따로 GS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 변리사님의 기출 사례집을 토대로 혼자 기출 GS를 쓰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출을 보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6월에 진행된 실전B GS에서는 역시나 뒤에서 세는 게 빠른 성적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 잘하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변리사님의 강의를 듣고 복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상위 20%까지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최신판례 및 탐텐 판례 강의도 꼭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허법 같은 경우 매년 최판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의로 한 번 점검하고 나면 암기 밀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허가 어려운 분들께】

저는 수험 생활 후반부로 갈수록 민소보다 특허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럴 때면 기본서를 봐야 할지 GS 복습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기도 했지만, 매일 총알 암기를 하고 틈틈이 바주카포를 보는 것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더니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에 비해 점수가 낮지는 않았습니다. 민소에 자신 있는 분들은 특허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법- <점수: 59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상표법 2차 기본강의, 기초GS, 실전GS A형, 실전GS B형, 최신판례
- 교재
상표법 2차 기본서

【수강한 GS】

25년 2~3월	25년 4월	25년 5~6월	25년 7월	25년 7월
상표법 기본강의 +기초GS	상표법 실전GS A	상표법 실전GS B +최신판례	종합모의고사	시험

【공부 방법】

개인적으로 상표 GS 성적이 가장 오르지 않아 고민했으나, 결과적으로 필수 과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와 GS 성적에서도 못 받던 점수를 시험장에서 받았을 정도로 눈에 띄게 점수 상승이 있었던 과목입니다.

상표 같은 경우에도 특허처럼 짜투리 시간에 암기 자료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10~15분 정도를 할애해 전날 외운 부분을 써보는 식의 암기를 매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법리를 외운 날도 있고, 판례를 외운 날도 있는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암기 분량을 늘리며 매일 꾸준히 암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으나 결국 GS 성적과 실제 시험장에서 반드시 도움이 되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상표에서는 판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차 시험 공부를 할 때 판례보다는 기출에 초점을 맞춰 공부했기 때문에 초반 GS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상표는 문제 틀과 답안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판례와 기본 개념을 암기자료를 통해 암기하고, GS를 복습하면 62회 시험처럼 당황스러울 정도로 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동안 공부했던 대로 답안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GS 성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전체 GS 중 4~5번 정도 30% 안으로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항상 상위 50~60% 정도였습니다. 때로는 70%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GS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GS 점수를 받고 상위 퍼센트와 모범 답안을 보며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공부를 하며 GS 성적이 점점 오르는 것을 확인하다 보면 실력은 반드시 늘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GS에서 처음 50점을 넘었을 때 감격했고, 실제 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점수: 65.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저작권법 기본강의, 기초GS, 실전GS
- 교재
저작권법 기본서

【수강한 GS】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25년 7월
저작권법 기본강의	저작권법 기초GS	기본서 및 기초GS 회독	저작권법 실전GS	종합모의고사

【공부 방법】

저작권법은 딱 패스할 만큼만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이다 보니 공부할수록 흥미가 생겨 나름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체감 난이도는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과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작권법은 법리를 한 번 이해하면 웬만한 문제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으든 저작권법은 기본 강의의 내용과 GS의 모범 답안을 연결해서 복습하는 방법을 통해 공부하시면 저작권법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꼬아 출제하든 패스하실 점수는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범 답안이 없더라도 4~5개년 정도의 기출을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불안했던 점은 타학원에서 수강한 기초와 실전GS 모두 무척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시험 2주 전에 본 윌비스 모의고사에서 김선화 변리사님의 문제를 풀어서 처음 채점을 받은 결과 50점이 넘어 안심하며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선택과목 GS를 무척삭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를 잘 찾아 한 번은 채점을 받아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23페이지			
특허법	21페이지			
상표법	페이지			
선택과목	20페이지			

【오픈북에 관하여】

책을 언제까지 보면서 답을 써야할까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텐데요. 저는 6월이 되어 모든 과목의 실전B GS가 시작되자 우선 책부터 덮었습니다. 당연히 민소 암기는 부족했고, 특허와 상표도 낮은 판례 문제가 나오면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6월부터는 책을 덮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소는 6월에 처음 책을 덮었고, 특허와 상표는 기초 마무리 단계와 5월(기출 혹은 실전A) GS부터 조금씩 시도를 했습니다. 저작권도 부족하지만 실전GS에서는 아예 책을 보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 오히려 정말 부족한 부분과 자신 있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기초와 실전GS를 통틀어서 항상 주어진 시간을 지켰는데, 점수가 깎이더라도 시간 내에 적은 답으로 채점을 받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서 GS에서는 조금 초과하더라도 생각한 답을 모두 쓰고 채점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용한 펜】

사소한 것이지만 2차 시험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펜이나 답안지 선택 등에도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 짧게 덧붙입니다. 저는 2차 공부 초반에 제트스트림 0.5, 0.7, 1.0, 에너겔 0.7을 모두 써보며 저에게 가장 잘 맞는 펜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 제트스트림 0.7로 정착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제트스트림 0.38을 쓰던 것이 습관이 되어 그 영향도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온라인 GS 수강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쿠팡에서 산인공 답안지를 대량 구매해서 과목별로 썼는데, 네이버쇼핑에서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이 정말 자주 아프실 겁니다. 저는 답안을 쓸 때는 불편해서 못했지만, 평소에는 계속 아대를 착용했고, 자기 전에 붙이려고 피부에 자극이 덜한 패스를 찾느라 돈을 꽤 썼습니다. 해당 패스는 “신신파스 FLEX(플렉스)”라는 제품인데,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활 일반-

팁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이기에 민망할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 일들이기에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라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동차생 분들이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습 방법】

2차 공부를 할 때는 GS 수강하는 날이 아니면 반드시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눈을 뜰 때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었다 보니 한 과목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인마다 공부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 과목을 하루 전체를 할애해 진득하게 하는 것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고, 하루라도 놓치면 금방 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방식을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실전 GS 수강 기간(5월 이후)에는 GS를 쓴 날에도 어떻게든 4과목을 모두 보려고 했습니다. GS가 없는 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15시간이라고 잡으면, 민소 7시간+특허 4시간+상표 3시간+저작권 1시간 정도의 시간 분배를 항상 유지했습니다. 당연히 해당 시간이 순공 시간인 것은 아니지만, 저 시간을 초과하지도, 더 줄어들지도 않게 매일 노력했습니다. 공부가 잘 되더라도 다른 과목을 위해 시간이 되면 바로 다른 과목 책을 꺼낸 것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GS 수강】

또한 GS 수강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5월이나 6월이 되면 주말에 3과목씩 몰아서 GS를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월에 토요일에 2과목, 일요일에 3과목 GS를 작성해보았는데 너무 벅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과감하게 주말에 2과목 현장 GS, 월화에 2과목 온라인 또는 녹강 GS를 수강했습니다. 당일 복습을 지키며 토일월화에 걸쳐 2과목씩 GS를 쓰다 보니 시험 루틴에 맞게 답안지를 써볼 수도 있고, GS 복습을 미루지도 않게 되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겠지만, 저처럼 하루에 3과목은 너무 지치는 분들이시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활용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관리, 멘탈관리】

건강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준비를 시작하고 처음 한두 달 정도를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간식으로 떼우며 했습니다. 당연히 탈이 났습니다. 1인분을 배부르게 잘 먹는 것이 자랑 아닌 자랑이었던 제가 밥 반 공기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고, 소화가 안 되는 기분이 싫어 끼니를 거르면 속이 너무 쓰려서 공부를 할 수 없을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증상이 계속되자 결국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위내시경도 하고 두 달가량 하루 두 번씩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완전히 생활 습관을 바꿔서 떡 한 조각, 빵 하나라도 먹으며 세 끼를 챙겨 먹었습니다. 절대 과식하지 않고, 절대 굶지도 않는다는 마인드로 남은 수험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생활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7kg 정도 빠졌으니 굶으며 공부하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끼니 챙기는 것으로 했다면 어떤 분은 운동이고 어떤 분은 휴식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만의 최소한 하나의 건강관리 철칙은 가지고 수험생활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슬럼프 극복 방법으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슬럼프라고 착각하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척하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매일 되뇌었습니다. 수험생들은 모두 힘들게 공부하고 있으며, 작은 핑계가 늘어나면 공부하지 않을 이유만 생길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각박하게 대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는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불합격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무서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판례’라는 글자를 한자로 쓸 줄 알게 된 것 말고 나에게 남는 것은 없겠구나, 하고요. 수험생활은 당연히 지치고 외롭지만, 금방 합격하고 웃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상 다른 사람의 위로가 잘 와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성향이신 분이시면 주변에 기대지 않고 수험 기간 동안만 스스로에게 가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버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장소, 생활 리듬】

우선 저는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싱글형 독서실에서 1년 내내 공부했는데요, 본가에서 공부할 때는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약 9개월을 공부했고, 역삼에서 공부할 때는 고시원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약 3개월을 공부했습니다. 오픈형에서는 오래 공부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저는 혼자서 공부하는 게 편해 스테디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싱글형 독서실이 매우 잘 맞았습니다. 독립적인 공간이되, 집이 아닌 곳을 찾는 분들께 싱글형 독서실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에 반나절도 쉬지 않고 매일 공부했습니다. 순공 시간은 측정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독서실에 앉아 있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이었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0분과 잠들기 전 30분을 합해서 최소 15시간 동안은 책상 앞에 있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17시간까지 책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쉬는 날의 중요성을 매일 느꼈지만, 저의 목표는 오로지 동차 합격뿐이었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쉬자는 생각으로 정말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2차 시험 준비를 위해 이사를 하거나 몸이 너무 안 좋은 날은 반나절 정도 공부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1년의 수험 기간 중 합쳐도 일주일 정도였고, 정말 늘 공부를 했습니다. 저처럼 불안해서 휴식 시간을 가지지 못하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본인의 공부 패턴에 맞게 매일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GS를 온라인으로 수강할지 현장에서 수강할지 고민이신 지방 수험생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 역시 1차 공부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수강하였고, 제가 사는 지역과 가까운 시험장에서 1차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2차는 진입과 동시에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현장에 대한 고민이 늘어났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는 일에 권태를 느끼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해서 4월 말부터 시험 날까지 3개월간 역삼 근처 고시원에 살며 2차 공부를 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장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달(GS 한 세트)은 현장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정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7월 초 각 학원별로 진행되는 모의고사라도 현장에서 치러 보

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제가 현강을 전혀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스터디는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GS 스터디는 해봤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얼마큼 쓰는지 확인해보는 것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꼭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 단 하나의 스터디도 하지 않았습니디. 스터디 역시 무조건 비추하거나 무조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해보지 않기도 했고요. 스터디의 본질은 다른 수험생과 교류하며 자극도 받고 응원도 주고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스스로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도저히 스터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아는 수험생이 없어 합격자 발표 후 처음 행사장에 갔을 때 조금 외롭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도 저는 스터디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으시면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셔야겠지만, 괜한 불안감에 스터디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고민이 SNS이실 텐데요. 저는 성격이 조금 꼬여 있어 SNS를 완전히 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싶으실 텐데,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은 쉽게 지웠는데 인스타그램을 지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시험 진입 한 달 차가 되었는데, 우연히 인스타그램 피드에 CPA 합격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지인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게시물, 그것도 변리사 시험이 아닌 전혀 다른 시험 결과를 보고 마음이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일 초도 망설이지 않고 계정과 함께 인스타그램 앱을 지웠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어쩔 수 없이 SNS를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정말 멘탈이 강하신 분이 아니라면 SNS는 수험기간 내내 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감사의 글】

월비스 학원의 강사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질문하는 것에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습 및 이해 차원에서도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월비스 박형준 변리사님은 수강생들이 있는 단독방이나 개인 카톡을 통해 질문을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수험생활을 거듭할수록 특허라는 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소하다고 싶은 부분까지 변리사님께 자주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항상 자세하고 친절하 답변 주셔서 수험 기간 내내 든든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리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답안을 쓸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전반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차 합격 후 변리사님께 꼭 감사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창한 강사님께서 기초GS 기간에 제가 대면으로 질문을 드렸을 때, 공부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민소가 너무 막막했던 저에게 그 말 한 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질문하며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정정 해주시기도 하셨고, 기본적인 법리가 이해되지 않아 질문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잘하고 있다고 해주셨던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선화 변리사님 같은 경우, 제가 변리사님의 수강생이 아니었음에도 수험생활 막바지에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월비스 모의고사를 치르고 저작권법 문제에 관해 변리사님께 개인 카톡을 드렸는데, 시험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라 멘탈이 많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모의고사 문제뿐 아니라 다른 질문까지 친절하게 답해주시고 응원의 말까지 해주신 덕분에 멘탈을 끝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사실 합격하였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합니다. 합격 발표 일주일 전에는 하룻밤 사이에 합격하는 꿈과 불합격하는 꿈을 모두 꿀 정도로 멘탈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오랜만에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중이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사실 합격 발표가 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변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일방적으로 잠수를 탔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수준이었는데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제법 괜찮게 살아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보다 연락을 자주 못했던 친구들이 연락을 먼저 해준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잘 지내냐는 짧은 말이기도 했고, 저의 근황을 걱정하는 장문의 글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두가 저에게는 얼른 합격해서 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감사한 분들은 부모님입니다. 거의 통보에 가깝게 수험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본가에서 공부를 할 때 늦은 밤 귀가하는 딸이 걱정된다고 매일 마중 나와 주신 아버지와 타지에서 홀로 밥도 못 챙겨 먹을까 넘치는 생활비와 간식을 보내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기껏 센 척해놓고 본인에게만 약한 척 앓는 소리를 하는 언니에게 항상 웃어주고 이야기 들어주었던 동생에게도 많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십 대가 될 동생에게 언니랑 앞으로 더 재밌는 추억 많이 쌓자는 말도 함께 전합니다.

천선란 작가님의 「천 개의 파랑」에 나오는 문장 중 “행복만이 그리움을 이겨.”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지만, 수험 기간 동안은 이 문장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행복이 되는 그리움이 있다는 걸 깨닫는 매일이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안부를 묻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매번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리움이었으니까요. SNS와 단절된 수험 생활 동안 가장 많이 한 것은 다름 아닌 ‘생각’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물론 가장 많이 하긴 했지만, 1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한 그리움을 꽤 많이 가질 수 있었던 점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부모님과 동생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수험생 분들과 진입 고민을 하는 분들도 힘들 때면 합격 후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기 전에 꼭 수험 기간 내내 행복이 될 그리움을 많이 쌓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